

【Fiction】 - 煥 >

[정엘 장편] 상처받은 엘의 유희 5화

ko 운디네 1:1 채팅
2020.06.20. 12:16 조회 605

재빠르게 소설 써왔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많네요~^^
===
침대위에서 쓰러지듯 잠을 청한 엘을 바라보고 있는 라세크
그는 엘이 공원에서 엘퀴엔들을 만났을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대체무슨 일이 있었던거야...엘"
"라세크님!!또 땡땡이에요?빨리 가시죠, 할일이 산더미라구요!"
"그래..가자"
"...이번엔 왠일로 순순히 가시네요?"
"알아볼게좀.. 있거든"
"제가 알아볼까요?"
"아니,됐다. 내가 알아볼게"
"알겠습니다"

그를 잡으러 온 수행천사는 처음보는 그의 모습에 의아해 하며 라세크와 신계로 돌아간다

<이동>

***
<주신전>

"주신님, 축복과 은사의 신,라세크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여보내주거라"
'이제..알때도 된건가..'

수행천사가 나가고 곧이어 라세크가 들어왔다. 슬픔이 담겨 있는 그의 붉은 눈동자가 주신님을 똑바로 바라본다.

"축복과 은사의 신 라세크가 모든이의 창조주이자 우리들의 아버지,주신님을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라세크"

라세크가 고개를 들자 주신이 말한다.

"물의 왕..엘에게 일어났던 일을..알고 싶니?"
"알려..주시겠습니까?"

【Behind Story】 N
【잡담코너】
【비평&추천】
:With 煥:
【버뮤다 삼각지대】 - 煥
【전력60분】 - 煥
【Cartoon】- 煥
【Drawing】-煥
【Quiz¿】 - 煥
【Fiction】 - 煥 N
【Etc】 - 煥
【完 - 끝났어요!】 N
:CREATION:
【Request】
【Cartoon】-Etc
【Drawing】-Etc
【Fiction】-Etc
:Operation:
게시물 리턴
【(구)가입인사】
【폐쇄예정】
:Past:
:지난 이벤트:
【2015 대항전】
【2016 활동이벤트】
【2017 콘테스트】
마니또
순간포착!
스킨&대문
LINK
접속멤버 1명
pjh5338
카페 인기 태그 more
최근 3일간 태그가 없습니다.
카페탈퇴하기
궁금한게 있을 땐 카페 스마트봇

"너에겐 알려줄수 있다. 하지만..견딜수 있겠니?그녀가 겪었던 슬픔을.."
"알고 싶습니다. 엘이 슬퍼하는걸 보고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언제나 웃고 있었던 엘. 상처받아도 가족이라 사랑했던 바보같이 착한아이..
그녀를 바라볼때마다 그녀의 눈속에 들어있는 알수없는 슬픔때문에 늘 걱정이였다.
그럼에도 항상 나에게 환하게 지어주었던 미소..
13년전 공원 호숫가에서 울던 엘의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았다.
원래는 그녀가 말해줄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다

'미안하다..엘..'

너를 믿지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나를 용서해줘...

"알겠다..그럼 보여주마..그 아이에게..무슨일이 있었는지.."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라세크의 눈앞이 흐려지며 쓰러졌다. 그는 수행천사를 시켜 라세크를 방에 데려다 놓은뒤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갔다.

"그아이를..잘부탁한다"

***
'여긴..어디지?'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 준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푸른머리의 인영이 보였다.
장소는 에바스 에덴..그곳에서 엘은 엘뤼엔들과 같이 즐겁게 놀고 있었다

'저랬는데 왜 그렇게 태도가 변한거지?'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엘이 배신당했던 그때로 갔다

"꺼져라 엘퀴네스"
"하찮은 인간의 전생을 가지고 있던 주제에"
"너같은 놈이 왜.."

부드득!

이가 갈렸다.
그 아이에게..안그래도 여리고 여린 그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다니

시간은 다시 흘러 주신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다

"카류안의 저주란다.."
"저주.."
"그 저주는 네가 죽어야지 풀린단다.."

!!!
설마..안돼,엘.. 죽으면 안돼. 그런놈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마! 널 배신한 놈들이야. 그런놈들까지 사랑할필요 없잖아!!

"그럼..제가 죽을게요.."
"미안하구나..나의 아이야.."

장면은 또다시 바뀌었고 엘이 죽는 날로 변했다

푸욱!!

"안돼!!!!"

라세크는 주저 앉았다. 엘에게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분노 했다.

너희들이..!가족이라면서 그깟저주때문에!!그게 대체 뭐라고 엘을!!!
용서 안해. 엘을 상처입힌 너희들을!!

장면은 다시 바뀌어 주신전

엘은 주신덕분에 살수 있었고 지구로 가게 되었다
그때 엘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보여서 나도모르게 절로 웃음이 지어졌다.

시점은 다시 바뀌었고 에바스에덴에서 엘을 떠나보낸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라세크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들을 경멸에찬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저주가 풀린후 에바스에덴에 모여 계속해서 절망하고 있었다.그리곤 자연의 여신에게 찾아가 엘을 찾으러 떠난 것 까지 보았다.

모든 장면이 지나가자 주변은 다시 어두워 졌고 라세크는 털썩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런일이..있었다니..'

미안해..엘..내가 저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미안해

그는 계속해서 흐느꼈고 어디선가 주신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이만 돌아오려무나,라세크'

라세크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눈을 떳을때 그는 울고 있었다. 엘에게 너무 미안했다. 엘이 강지훈일 시절..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죄책감에 하루하루 힘들었다. 다음생에 널 다시 만난다면 반드시 지켜주겠다 다짐했는데...!이번에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지구에 있을땐 무슨일이 있어도 너가 행복하게 해줄꺼야"

어느샌가 나에게 이렇게나 들어와 버린 너를 위해...

***
탁탁탁

누군가가 손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얼마전 인신매매때문에 경매장에 갔다가 엘에게 발로 걷어차였던 바로 그남자. 지독한 인연인지 그는 엘이 묻어준 그아기를 죽인 범인..바로 No.2기업의 회장 박수형이였다

그는 경찰서에 잡혀갔지만 자신의 죄를 다른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간신히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그리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녀석들을 찾아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가늘고 높은..소프라노톤의 목소리였어'

그는 대기업 회장답게 기억력이 좋았다

"어디서 찾아야 하지.."

그가 고심하면서 복도를 걷고 있을때 딸아이의 방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

-...난 너같은 놈을 몰라-
"!!!"

저목소리..!틀림없는 저목소리야!!

그는 부리나케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딸의 방에는 어떤 여자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 사진은 처참하게 찢어져있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침대에 앉아 녹음파일을 들으며 발광을 하고 있었다.

"아아아악!!!죽여버릴꺼야. 반드시 니자리를 가지고 말겠어. 두고보라고, 이청화!!!!!"
"승희야,왜그러니!!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빠!나 진짜 열받아!!뭐하나 내가 뒤떨어지는게 없는데!!"
"진정해라,딸아. 실은 내가 그 아이를 찾고 있었다. 만나서 반드시 갚아야할 빚이 있거든"
"아빠가?"
"아빠만 믿어라. 내가 그 아이를 반드시 저세상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진짜?"
"그래. 그 녀석이 누군지 나에게 말해주렴"
"응!이놈은 우리학교 1학년 3반 이 청화라는 놈이야. 우리나라 No.3기업의 양녀로 지금은 여기서 살고 있어."

승희는 지도에서 엘의 집을 찾아 가리켰다.

"알았다. 역시 우리딸이라 그런지 똑똑하구나"
"물론이지~내가 누군데~"

그아버지의 그딸이라고 성격 더러운건 유전인가보다
게다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기업의 딸이라니..그에겐 더욱 좋은 먹잇감이였다

그는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몇마디 지시를 하더니 이내 씩 웃고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됐어?"
"물론이다. 딸아. 이제 내일이면 그 계집은 저세상 사람이 되있을거다"
"응!그런데 아빠 조심해. 실은 걔가 CH조직의 보스였어."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니까?"
"후후후.. 그거 잘됐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거대조직을 먹어버리는 거다. 보스는 당연히 우리딸이 해야지"
"와아~아빠 최고!"

그러면서 박수형의 목에 매달이는 박승희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간과했다. 비록 인간의 몸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고귀한 정령왕의 영혼.
상처는 입겠지만 제아무리 맹독이라 한들 그녀를 죽일수는 없다는걸
또한 그녀가 다스리는 물의 종류로는 더더욱 그녀를 해칠수 없다는걸..

***

엘은 아침일찍 눈을 떴고 아직 새벽이지만 잠이 더 오지 않아 마당에 있는 커다란 온실을 갔다. 그 온실은 엘이 공원 호수 다음으로 자주 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의 조화는 가히 예술이였다.
이곳에 오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기에 엘은 이곳을 가장 좋아했다.
그렇게 한참동안 온실속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자 우리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나를 불렀다

"아가씨~아침식사하세요~"
"아,금방갈게,해인"

해인. 그녀는 엘을 자주 도와주는 이집의 하녀로 엘과 많이 친한 사이다. 게다가 젊은 사람이라 말도 잘통해서 언니동생처럼 지내고 있다

엘은 어깨에 두르고 있던 가디건을 입고서 집으로 들어갔다
지난주 금요일. 인신매매 사건을 해결하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인 오늘 학교를 가야한다

'그러고 보니,라세크가 금요일부터 안보이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왔니?일찍일어났구나"
"네,자고 나니 개운해졌어요"
"청화야..슬픈일 있으면 참지말고 금요일처럼 마음놓고 울으렴."
"네..고마워요,엄마"

'따뜻하다.편안해'

"이제 밥먹어야지?"

"네!"

나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가족은 이사람들이야

나는 아침을 서둘러먹고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곤 친구들과 함께가기 위해 늘 만나던 곳으로 갔다.

"청화 늦었다~"
"시간약속 잘지키는 청화가 왠일이래~"
"미안미안~"
"얼른 가자. 우리 늦겠다."
"우리 이러다가 지각 후보 단골되겠다"
"킥킥,그러게"

우리는 그대로 가다간 지각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여유롭게도 걸어갔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우와아아악!!늦었다아아!!"

이상황이다.

"세이~~프!!"
"엄청 힘들다"
"얼른 안기나 하자,선생님한테 또 잔소리들을껄?"
"잘알고 있으니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았네?"
"헉!쌤!"
"너넨 어떻게 같은소리를 맨날듣니?"
"아하하.."
"얼른 들어갈께요오~"

우리는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나는 나를 쳐다보는 트로웰을 애써 무시한체 자리에 앉았다.

"자~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다~여학생들이 꽤나 좋아할만한거다"
"쌤~빨리 말해주세요~"

여자애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 여학생들은 아주 환호를 한다

"우리반에 새로운 부담임이 오셨다. 과목은 수학이고 잘생긴 남자쌤이야~"

여학생들은 잘생긴 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좋아라 했다.
하지만 나에겐 별 감흥 없었다. 워낙 많이 봤어야 말이지
내 친구들도 들뜬 모양이다. 그들이 좋아하자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그때 나는 트로웰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순간 흠칫놀라며 고개를 바로 돌렸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나를 보는 트로웰의 눈은 더욱 슬퍼져만 갔다

"들어오세요"

담임선생님이 부르자 문이 열리면서 키큰 남자가 들어온다.
남자의 얼굴을 본 여학생들은 당연히 소리를 질렀고 남자애들 마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걸어올수록 경악에 찰수밖에 없었다.

그곳엔 긴 백금발의 머리에 맑은 벽안의 눈동자의 그가

'엘뤼엔..'

엘뤼엔이 서있었다

***
'아니,엘뤼엔은 또 왜 온건데에!!'

내 머릿속은 복잡했고 나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다.
원래라면 어지럼증같은건 느끼지 않을텐데 주신님이 지구로 오면서 인간의 몸으로 바꾸었으니깐..아프기도하고 상처도 생긴다.

"나는 엘뤼엔 크리노 루사테다. 담당과목은 수학. 너희들의 부담임을 맡게 됐다"
"와아아아!!"

여학생들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이윽고 처음으로 길게 느껴졌던 조회시간이 끝나고 나는 쓰러지듯 내자리에 엎어졌다.
빨리 엘뤼엔이 나갔으면 좋겠지만 트로웰처럼 여학생들에게 둘러쌓여 움직이지 못했다. 뭐 나갈생각도 없는것 같아 보이지만

내친구들도 엘뤼엔에게 가려고 했지만 내가 쓰러지듯 엎어지는것을 보고 나에게 다가왔다.

"청화야,어디 아파?"
"괜찮아. 잠시 현기증이 난거야"
"그렇다기엔 얼굴이 너무 창백해"
"오늘은 그냥 조퇴하는게 어때?"
"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마~"
"그렇게 웃으니까 더 걱정되는데.."
"정말 괜찮으니깐~우리 첫교시 음악이지?얼른 음악실 가야지"
"아 맞다!음악쌤 완전 깐깐한데!"
"빨리가자,수진이 넌 준비물 챙겼어?"
"여기 있어,늦기전에 가자"
"너희들 먼저 가있어. 난 조금 있다가 갈게"
"...믿고 갈테니까 빨리와라.."
"알았어~"

나는 그들을 향해 싱긋 웃어주었다
이윽고 반에 나만이 남자 나는 어지럼증에 머리를 짚었다

"너무 어지러.."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어지럼증까진 아니였는데?

"...빨리 수업이나 가야지.."

나는 음악실로 가기 위해 일어났다.

'비틀'
"윽..!젠장..오늘 몸상태가 말이 아니야.."

나는 세상이 도는 것같은 어지럼증과 통증을 억지로 삼키며 음악실로 향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새 4교시
게다가 나에게 가장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수학시간. 바로 엘뤼엔의 시간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지금 몸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엎드려 있을수 있다는것
평소라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아프니깐

수업이 시작되고 엘뤼엔이 들어왔다. 여학생들은 당연히 환호했지만 나는 지금 그런걸 신경쓸때가 아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눈앞이 흐려진다. 엎드려 있지 않으면 속에서 올라올 정도로

엘뤼엔은 그런 나를 한번보더니 이내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중에 중간중간 나를 잠깐씩 돌아보는걸 보니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걸 눈치 챘나보다

'눈치는 빨라가지고..'

제일 들키고 싶지 않은 상대가 엘뤼엔인데..

그때 다빈이가 뒤에서 나를 쿡쿡 찌르곤 속삭인다

"청화야..너 많이 아파?얼굴이 엄청 창백해"
"그냥..좀 어지러워서..''
"얼마나 어지러우면 평소엔 자지도 않던 애가 그렇게 엎어져 있냐?"
"괜..찮을꺼야."
"괜찮다가아니라 괜찮을꺼야라니.."
"괜찮아..수업중이잖아, 빨리 수업 들어야지"

그리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앞을 바라본다.
그때 엘뤼엔과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인지 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엘뤼엔은 얼굴이 창백한 나를 보고는 잠깐 한숨을 쉬더니 나에게로 다가온다. 그가 다가오자 흐릿했던 내 정신이 긴장때문인지 조금씩 돌아왔다

엘뤼엔이 내 앞으로 오더니 하는 말이

"너..보건실가라.."
"...에?"
"얼굴이 창백하면서 뭘 자꾸 버티겠다는거냐. 거기너,빨리 보건실 데려다 주고 와라"
"네..네!"

엘뤼엔이 뒤에있던 다빈이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몸이 많이 앉좋았기에 그냥 그말을 그대로 따랐다.
다빈이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나를 부축해서 앞문으로 갔다. 그런데 교탁을 지나는 순간 또다시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순간 적으로 한손으론 교탁을 잡고 다른 한손으론 입을 틀어 막았다.
그러자 기침이 여러번 나왔고 내 손에 묻어져 나온것은..

"..피?"
"처..청화야!!너 피가!!"

다빈이가 옆에서 깜짝놀랐지만 나는 그에 답할수 없었다.

소리가 점점 작게 들리면서 눈앞이 흐릿해졌고 나는 결국 그자리에서 쓰러졌다

털썩

"처..청화야!!"

***
엘이 쓰러지자 반아이들는 모두 깜짝 놀라며 엘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청화야!!정신차려봐,청화야!!"
"소라야,빨리 119..구급차 불러!!"
"아..알았어!!"

다빈이가 계속 엘을 깨워보지만 엘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빨리 보건실로 옮겨"
"트..로웰?너..!"
"뭐해,빨리!"

친구들은 엘을 옮기려 했지만 그들이 옮기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때릴때에는 힘이 넘쳐났지만 사람을 들어올릴 정도의 힘은 없었기에..

"다들 비켜라"
"엘뤼엔.."

엘뤼엔이 엘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엘을 안아들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파지직-

순간 전기 스파크가 튀며 엘뤼엔의 손을 밀어낸다

"!!!"
"거부하는건가..."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엘이 위험하다. 신력을 이용해 치료하고 싶지만 엘이 본능적으로 거부해 사용할수 없다.
결국 엘뤼엔은 자신이 다치는 것을 감수하고 엘을 번떡 안아 들어올렸다. 그리곤 빠르게 보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 뒤를 엘의 친구들과 트로웰이 따랐다

<보건실>
"세상에!!어떻게 된거에요!!"

보건선생님이 본 엘의 상태는 심각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한번 피를 토했는지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상태가 심각하다. 구급차를 부르긴 했지만 가만히 있을수는 없어 데려왔다."
"일단..빨리 침대에 눕혀주세요!!"

엘뤼엔이 엘을 침대 위에 눕혔다. 엘은 그때까지도 피를 계속 토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계속 그 피를 닦아 내고 있었다.

"엘..."
"일단 여긴 우리가 있을테니 너희는 반으로 가있어라. 가서 자습하고 있으라 그러고"
"하지만..!"
"어서"
"...네.."

엘뤼엔이 싸늘 하게 말하자 그들은 어쩔수 없이 반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나가자 트로웰은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 앉는다.

"엘...괜찮은거겠지?"
"나도 모른다. 신력이 통하지도 않아. 아마도 엘이 거부하고 있는것 같군"

엘뤼엔이 손에난 상처들을 신력으로 치료하며 말했다

"그런데 왜 피까지 토한거지?주신의 신력까지 쓸수 있는 몸인데.."
"잘봐라..지금 엘은 인간의 몸이다"
"...뭐?마법이..아니라?"
"마법으로 바꾼건 머리색과 눈색뿐이다. 봐라. 시전자가 이상태니 마법이 풀려 원래의 머리색으로 돌아왔지 않나. 하지만 체형은 그대로인걸 보면 진짜 인간의 몸이다. 지구로 오면서 바뀌었나 보군. 평범한 인간보다는 튼튼하긴 하다만"
"그럼..죽을수도..있는거야?"
"지금으로썬 확률이 반반이겠지.."

쿵!

트로웰은 순식간에 표정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밖에서 듣고 있던 엘의 친구들도..

때마침 학교에 구급차가 도착한다. 구급대원들은 서둘러서 엘을 들것 위에 눕히고 구급차로 달려간다. 그리고 엘뤼엔과 트로웰도 그 뒤를 따른다. 둘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같이 이동했다.

엘의 친구들을 멀어져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반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구급차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여자는

"박승희..?"

엘의 친구들은 비밀조직 간부답게 서둘러서 사물함 뒤로 숨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핸드폰을 켜서 수진는 녹음기를 소라는 카메라를 튼다. 그러곤 승희가 창문을 보면서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촬영했다

"드디어..드디어..널 죽일수 있어.. 이청화..! 내가 말했지? 후회하게 될거라고..흐흐흐,이젠 너의 그 자리도 네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꺼야..아하하하!!"

!!!저년을 그냥!!

수진이가 욱해서 나갈려고 했지만 다빈이가 그런 그녀를 말리곤 속삭인다.

"지금 나가면 안돼. 조금만 참아. 여기서 나간다고 해결되는건 없어. 혼자 떠들게 내버려둬. 그래야 증거가 더 생겨서 빼도박도 못하게 잡든 뭘 하든 하지"
"..젠장..!"

"아~이청화. 넌 모르겠지. 지금 니가 먹은 그건 다른것보다도 몇배는 강하다는 맹독중의 맹독이니까"

!!!맹독? 독을 먹였다고? 저것들이 아주 미쳤나!!
그들은 모두 분노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할수록 증거가 생겨 그들을 잡을수 있기에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간신히 잡으면서 계속해서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반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사물함 뒤에서 나왔다.

"저런 미친놈들..!"
"제정신이 아니야..독이라니!!그것도 맹독을!!"
"저것들을 가만 안둬!!감히 청화를!!"
"게다가 청화 자리를 탐내고 그런거야..그렇다면 청화의 조직보스 자리를 노린걸꺼야."
"맞아 지난번에도 조직을 언급했어"
"게다가 그것 뿐만이 아니야 얘들아.."
"소라야..?그것말고 더있어?"
"청화는 No.3기업의 딸이야. 그리고 내가 알기론 저 박승희는 No.2기업 회장의 딸이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해결했던 그 인신매매 사건 알지?그거 뉴스에 나오면서 엄청 소란이였잖아
그러면서 그 기업 주식이 많이 떨어졌나봐. 그러면서 당연히 청화네 기업이 치고 올라갔다고 들었어. 그 기업 회장은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겠지."
"그럼..위기감때문이라고?"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수도 있어"
"다빈아..?"
"지난번에 우리가 사건해결하러 갔을때 마지막 남은 한 남자 기억해?"
"어..청화한테 발로 걷어차였던.."
"어두워서 잘 못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사람이 그 기업 회장이였던거 같아."
"그게 진짜야?!"
"그때 목소리가 티비에서 나왔던 목소리랑 똑같아"
"그사람..분명히 돈으로 구치소 빠져나왔었지?!"
"맞아..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청화를 찾았겠지..어떻게 찾았는진 모르겠지만 분명 그런걸꺼야.."
"아직 가설이긴 하지만 앞뒤는 들어맞아. 일단 우린 이 증거들 잘 보관해두고 혹시모르니까 본부컴퓨터에도 보관해두자"
"알았어.."

그들은 더 자세한건 후에 본부에 가서 이야기 하기로 했다.

게다가 맹독사건때문에 잠시 묻혀졌지만 보건실에서 들었던...어쩌면 청화일지 모르는 엘...이라는 존재에 대해 의논하기위해..

***
삐..삐..삐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곳
둘리는 소리라곤 가습기 소리와 엘의 심장박동수를 체크하고 있는 기계 소리뿐

엘뤼엔과 트로웰은 의자에 앉아 지금은 진정된 엘을 쳐다본다. 지금은 안정되었다곤 하나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였다

맹독..이랬다.

'감히 엘에게 맹독을..!!'

평범한 인간들보다 몸이 튼튼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죽었을 독이란다

그들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처..청화야!!"

그때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온다.
엘뤼엔과 트로웰은 그자리에서 일어날뿐 나가지는 않았다

"보호자분..되십니까?"
"네..청화가 왜 갑자기 쓰러진 겁니까?"
"맹독을 먹었습니다. 원래라면 먹자마자 바로 죽었을정도의 맹독입니다만..따님은 독이 잘 통하지 않는 체질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맹독인지라 급하게 수술을 해야합니다.."
"매..맹독이라니!!오늘 아침까지만해도 괜찮았는데..!"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일은 이따가 오늘 경찰에게 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빨리 해야하는데, 그게 문제가.."
"무슨..문제가 있나요?"
"따님 혈액형이 굉장히 희귀한 혈액형이라 지금 저희 병원에 남아 있는게 없습니다.빨리 같은 혈액형인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따님은...죽습니다.."
"!!!"

그자리에 있던 엘의 부모님은 물론 엘뤼엔과 트로웰의 표정이 모두 창백해졌다
얼의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주저 앉았다

"그럴...수가..청화가..우리 청화가.."

엘의 어머니는 결국 울어버렸고 그런 그녀를 그녀의 남편이 달래주었다

엘뤼엔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피면 될꺼다."
"무슨말이야?"
"설명은 자세히 못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내 피라면 이아이게 맞을꺼다."

그말에 모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빠..빨리 검사하러 가시죠!"

의사는 엘뤼엔의 피와 엘의 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검사실로 향했다
결과는 다행이 맞다는 것
의사와 간호사들은 서둘러서 엘의 수술준비를 했고 엘뤼엔의 피를 뽑아갔다. 많이 뽑았긴 했지만 신인 그에겐 조금의 피해도 주지 못했다

엘은 그대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엘이 나간 병실에서 엘뤼엔과 트로웰이 얘기했다.

"어떻게 된거야?신의 피를 나누어 주다니"
"아무리 지금 엘이 인간의 몸이라지만 영혼은 신의 영혼이다. 평범한 인간의 피가 잘 맞을거 같나? 맞는다 해도 엘에게 어느정도 타격을 줄거다. 그렇다면 같은 급의 영혼을 가진자의 피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 피도 될텐데..!"
"너는 지금 마나를 통해 육체를 입고있을뿐 그 피는 진짜가 아니지 않나. 게다가 신의 피는 상성이 없다. 드래곤처럼 누구에게나 맞는 데다가 더 튼튼해질거다"
"그런..."
"이제 수술이 잘 될지는 인간들 손에 맞겨야지. 그나마 이나라는 의료기술이 뛰어난거 같으니.."

그들은 학교로 돌아갔다. 학교는 당연히 쓰러진 엘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엘뤼엔은 그런 소란을 한순간에 잠재우고는 아까 다 하지 못했던 수업을 마저 했다. 물론 엘에 대한 걱정때문에 표정은 가히 말할수 없을 정도로 싸늘했고 트로웰의 얼굴에도 걱정이 한가득이였다.

"트로웰!!"

수업이 끝나고 이프리트가 트로웰을 찾아왔다.

"엘이 쓰러졌다는게 진짜야?"
"이따가 말해줄께. 여기는 듣는 귀가 너무 많아서 말이야"

이따가 말해줄게. 여기는 듣는 귀가 너무 많아서 말이야

원래같았으면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겠지만 트로웰의 표정을 보고 그만 두었다

***

산속 깊은 곳에 있는 CH조직 본부
본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보스의 방에서 3명의 간부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일단 정리해야 될게 너무 많아. 먼저 청화의 맹독사건. 사건을 정리해보면 청화에 대한 복수심과 위기감,그리고 탐욕때문에 청화에게 맹독을 먹였고 목소리의 주인을 알려준자는 그의 딸 박승희가 유력한 용의자다. 이거지?"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본부에서 모인 이유는 하나더.."
"그래..아까 엘뤼엔 선생님과 트로웰의 대화속 등장하는 '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야."
"그리고 그 '엘'이라는 사람이 청화일 가능성이 높지?"
"맞아. 그 증거로 트로웰이 처음 우리반에 왔을때 청화를 보고 "엘"이라고 불렀어"
"다음으로 수상한건 엘뤼엔 선생님이 청화를 들어올리려 할때 선생님 손을 밀어냈던 알수없는 기류.."
"또 보건실에서 둘이 얘기 했던 마법이나 신력이라는 것들..."
"그리고 엘이라는 사람이 둘을 거부한다 그랬어.만약 엘이 청화라면, 청화는 두사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돼"
"하지만 청화는 마치 처음보는 사람인것 처럼 행동했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청화가 기억을 잃은 건 아니야. 우리도 같이 자랐으니까 알아. 그렇다면 남은건 일부로 모르는척 한다는 것..."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한것. 엘이라는 사람이 지구로 왔다 그랬고 지금은 '인간'의 몸이라 그랬어.."
"지금까지의 증거를 조합해보면..설마..??"

"청화는...이세계의 사람이..아니다??"

===
공백제외:9451
그아버지의 그딸이라고 둘다 싸이코인가봐요..
너희는 나에의해 큰코다치게 될거다 ㅋㅋㅋ

그리고 엘의 친구들이 코난이 됐어요~^^
6화는 오늘 안에 올려보도록 하죠!

댓글 등록순 최신순 댓글알림

rin
우와 재미있었는데 분량까지많아서 너무 좋아요!!다음화도 기다릴께요!!
2020.06.20. 14:48 답글쓰기

ko 작성자
와~항상 감사합니다~다음화는 지금 쓰고 있으니 오늘 안에 올라올겁니다^^
2020.06.20. 14:53 답글쓰기

2—2
ㅠㅠ 잘읽었습니다..분량 혜자네요 진짜 사랑합니다♡♡
2020.06.20. 15:50 답글쓰기

ko 작성자
감사합니다~다음화도 쓰고 있습니다^^
2020.06.20. 16:01 답글쓰기

경가류
약속대로 5화를 올려주시다니..! 감동이에요..! 근데 실례지만 전편인가 전전편인가는 최승희였던 것 같기도..
2020.06.20. 17:38 답글쓰기

ko 작성자
헉!!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수정했습니다^^
2020.06.20. 17:47 답글쓰기

민Mn
재밌고, 분량도 많아서 좋아요!!! 오늘도 재밌게 잘봤습니다~!!!
2020.06.20. 17:47 답글쓰기